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내일 취임하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고사성어가 있다. '술집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라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이다.

춘추시대 송나라 어느 주막의 얘기가. 주막에선 술을 정성껏 빚어 오래 묵혔다가, 가장 맛이 좋을 때 내다 팔았다. 분위기는 깔끔하고, 안주도 그럴듯했다. 종업원도 항상 웃는 낯이었다. 그런데도 손님이 없었다. 답답한 주인이 마을 노인에게 지혜를 구했다. "개가 너무 사납기 때문이죠." "어리둥절해 하는 그에게 노인이 설명했다. "사나운 개가 손님을 보면 물러가고 1963년 시드니에 전화 상담실을 연 것이 국제생명의 전화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명의 전화는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긍정적인 신념을 확산 시키며 고통과 위기, 삶의 갈등 속에 있

가 딱하게도 꼭 그 모습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여 사법 당국이 들여다 보고 있는 각종 뇌물수수 사건에는 하나같이 '측근'이라는 자들이 등장한다. 업자~측근~단체장

로 이어지는 검은 연결 고리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초점이다. 측근들이 공사와 인사에 개입해 부정한 돈을 받고, 이익을 단체장에게 상납했다는 것이 사건의 개요다. 물론 주고 받은 뇌물 액수가 일치하지 않고, 측근이 잠적하거나 뒤집어 쓰면 사건이 흐지부지 될 때도 많다.

'아란 경관 조성 비리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몇몇 지자체의 야경 조성 공사 발주과정에서 수역원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는 로비스트, 자치단체장, 실세 측근, 그리고 검은 돈이 등장한다. 직접 거래에 나섰다 구속된 단체장도 있고, 측근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 것으로 주장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시장·군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한다.

민선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단체장의 가족이나 선거운동원들이 각종 인·허가나 공사, 인사 등 자치행정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다. 결국로는 단체장의 지시

민심을 외면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끌고 간 여권 등 '주막 장사'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허정무 리더십' 배워야

반면 허정무 국가대표 축구감독은 마음속의 사나운 개까지 몰아내 성공 신화를 쓴 경우다. 처음 대표팀을 맡았을 때만 해도 그는 권위주의적이고 고집스럽게 비칠 때가 많았다. 골 결정력 부족에 무승부가 겹쳐 '허무 축구'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안 되겠다 싶었지만, 그는 태도를 바꿨다.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면서 끈끈한 팀워크를 중심으로 자율과 화합을 유도했다. 선수들도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화답했다. 결과는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신화였다.

민선 5기도 '허정무 사단'의 초기처럼 뒤숭숭하게 시작되고 있다. 벌써 권한 밖의 민원을 들이대고, 자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는 새 단체장의 측근들이 많다고 한다. 살생부가 나도는 곳도 있다.

국민 성원에 보답하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의 자세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태극전사들에게 배울 일이다. 사나운 개는 키우지 말자.

〈여론매체부장〉 jjnews@

사나운 개는 키우지 마라

를 받아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 결정과정은 은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근 자치'는 견제 받지 않고, 책임 지지도 않는다. 주민을 위한다는 풀뿌리 정신은 뒷전이고, 감정이 개입되기 일수여서 지역 발전보다는 단체장이나 측근의 이익이 먼저다.

사나운 개는 도처에 있다. 돈 봉투를 바쳐서라도 '측근'이 되고픈 교육공무원들, 80년대 식 고문을 자행한 경찰, 지방선거

시설

'한나라 호남 배려 약속' 이번엔 지켜져야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이 또다시 호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했다고 한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진이에게 한 중진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남을 대표하는 집권당 의원이 없다"면서 "앞으로 공천 담당자로서 호남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도민에게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호남 몫 비례대표 배려' 약속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나왔다. 심지어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50%를 호남 출신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호남을 방문할 때 마다 꺼내 놓는 단골 메뉴인 셈이다. 이번에도 전당대회가 임박해 있어 비슷비슷한 약속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호남 배려 약속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쉬울 때가 되니까 또다시 배려 약속을 하고 있다"며 "마치 적선(積善)을 하듯 사랑 받

림을 하는 것으로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기대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정과를 초월해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적 사례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려 약속은 이번에는 지켜져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출신만 우리 지역일뿐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전문가 그룹 뒤에 호남 출신을 끼여넣었다. '무늬만 호남'이 아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정계는 물론 주요 국가기관에 중용해야 한다.

이번 6·2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두자리 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남 배려 약속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쉬울 때가 되니까 또다시 배려 약속을 하고 있다"며 "마치 적선(積善)을 하듯 사랑 받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박행순



우리나라 "생명의 전화(Life Line)"가 1976년 서울에서 처음 개통된 이래 현재 19개 지역에서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Life Line"이라는 명칭은 호주의 알렌 위커목사가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그가 1963년 시드니에 전화 상담실을 연 것이 국제생명의 전화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명의 전화는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긍정적인 신념을 확산 시키며 고통과 위기, 삶의 갈등 속에 있

의 전화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안타깝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전화가 신문, TV, 방송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소개되었으면 한다.

요즘에는 불륜과 왜곡된 성관계, 특히 근친상간 등 성 관련 전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혼기를 놓친 농촌 총각들의 성 문제는 개인이나 지역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제결혼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일부 남성에게만 가능하다.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 농

9191 생명의 전화

는 이들에게 전화 상담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핫라인'으로 불리는 생명의 전화(1588-9191)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각 지역의 일반 전화 역시 뒷자리 번호가 모두 9191이다.(광주 223-9191)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08년 매일 3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2009년에는 40명으로 급증하였다. 자살시도가 다행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는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우리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살 예방 상담 외에도 다양한 위기, 부부 갈등과 가족 간의 불화, 미혼모, 성문제, 학업, 진로, 청소년 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담 요청을 받는다.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제3자의 조언을 듣거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대안을 찾는 것은 개인적이고 패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생명

의 전화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안타깝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전화가 신문, TV, 방송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소개되었으면 한다.

요즘에는 불륜과 왜곡된 성관계, 특히 근친상간 등 성 관련 전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혼기를 놓친 농촌 총각들의 성 문제는 개인이나 지역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제결혼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일부 남성에게만 가능하다.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 농

촌 총각들이 꿈을 꾸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 배우자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개구쟁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곳,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여과 없이 듣는 생명의 전화에 지자체와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촉구하는 등, 고유의 업무 외에도 적극적인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싶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영혼이 메마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서 생명의 전화 봉사자들이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지난 6월 22일 제6기 광주 시민상담 교육을 통하여 35명이 50시간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들이 곧 전화상담 봉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라고 한다. 이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전남대 약학대학 교수·(사)국제과학문화협회 대표〉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결혼식장 뷔페 음식 부실...양심껏 영업했으면

얼마 전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300인분의 뷔페를 예약했고, 음식이 조차할 때 대비해 50인분의 여유분을 준비하도록 계약했다고 한다.

예식은 오후 2시였지만 식이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하객이 식당에 갔다. 그러나 식권을 내고 들어갔지만 음식이 없어 되돌아가는 손님이 발생했다. 또 음식이 떨어진 경우와 샌드위치 등 값싼 음식으로 대체되기 까지 했다.

참다 못한 혼주 쪽에서 식당에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자 뷔페식당 쪽에서는 "원래 이게 350명분이다"며 태연하게 말했다. 즉 손님들이 이미 350명분의 음식을 다 먹었으니

더 이상은 음식을 내올 수 없다는 얘기가었다. 정말 뷔페식당에서 100인분, 200인분, 300인분의 음식의 양이 얼마인지 세어볼 수도 없고 미칠 노릇이었다. 이는 너무나 적은 양으로 음식을 준비한 식당 측 책임이며, 설사 그 양을 다 먹었다고 해도 어떻게 결혼식 하객에게 샌드위치, 김밥을 먹고 가게 할 수 있나?

이것은 혼주와 하객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하게 하는 것이다. 결혼식에 오는 분들에게서 "손님 모셔다 음식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질책이 쏟아지지 않게끔 예식장들이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양심껏 제대로 영업해주길 바란다.

▲이영희·광주시 서구 양3동

기고

황정걸



지질학자이자 위대한 탐험가였던 베르디난트 반데비르 헤이든(Ferdinand Vanvever Hayden)은 우연한 기회에 뉴욕의 지질학자인 제임스 홀 교수와 함께 네브라스카 탐험에 참여하게 되었고 황성분으로 인해 바위가 노란색을 띠게 된 지역에 반하게 된다. 그 황색의 지질과 뜨거운 지하수를 하늘 높이 내뿜는 간헐천, 만년설을 안고 있는 45개의 봉우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의 지속적인 설득에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

과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모든 법령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열린 민원실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협의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단 한 번의 서류 제출로 모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공단은 한 건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부서 간, 지자체와 공단간의 여러 차례 복잡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과 지자체, 국립공원의 상생

원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도 1981년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정관리를 약간 달리한다. 옐로우 스톤의 경우는 정부의 주도가 아닌 민간이 앞선 예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이 할 수 있는 법 테두리에 '자연공원법'이라는 테두리가 하나 더 쳐졌으며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반발심이 생기기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만들기도 했다. 밀집마을지구에서 주택증축을 할 경우는 쉽게 허가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자연공원법은 물론 기타 관련법에 의해 고발된 경우도 있고,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창고신축을 하고 싶으나 처리 절차를 틀라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각종 행위허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이해 절차가 수반되지 않아 생긴 일이다.

그러기에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은 지역민과 국립공원, 지자체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 불린다. 국립공원 내에서 주택증축 등 각종 행위를 하고 싶은 민원인은 지자체 열린 민원실에서 허가 관련서류를 한 번만 접수하면 국립공원

민원인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2009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신안군, 진도군과 MOU를 체결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국립공원 직원 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업무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복합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두 번째 단추를 끼었다.

이러한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효용성을 지역주민에게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분기별 소식지를 가가호호에 전달하는가 하면, 지자체와 함께 지역민소식, 반상회보 등에 실어 지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더불어 도서지역에 위치한 해당분소에서 행위허가 상담 및 대필서비스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家家戶戶방문서비스"를 통해 행위허가 만족도를 상당부분 높이고 있다.

보전과 이용의 갈등은 공원 내에서 언제나 대립된 이념 갈등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자연공원법 본연의 정신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공원 내 지역주민과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진정 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장애인,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옳지 않아

지난주 토요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교통사고로 팔 한쪽을 잃었다는 장애인 한 분이 타서는 칫솔을 팔기 시작했다.

"편히 쉬는 시간에 죄송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값도 1000원으로 썼다. 그런데 물건은 싹던 아줌마 한 분이 그 칫솔을 다시 청년의 보따리에 슬쩍 되돌려 넣었다. 물론 아줌마는 좋은 뜻에서 그랬던 것이었다. 하지만 물건 팔던 청년은 아줌마에게 받았던 칫솔 값 1000원을 되돌려주는 게 아닌가. 순간

아줌마는 멍청했는지 "별 뜻 없었어요, 오해 마세요"하며 다시 칫솔을 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먼곳에 있지 않았다. 일종의 동정심조차도 그분들에게는 그게 편견인 것이다. 그저 일반인과 똑같이 대해주는 게 정말 장애인에게 잘해주는 것이란 걸 알게해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의 어슬픈 동정심이나 값싼 배려가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정은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無等鼓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Zeus)가 있다. 북유럽 신화에는 오딘(Odin)이 있다. 둘 다 '최고의 신'이라는 점은 같지만, 오딘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전능한 신이면서도,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몸 일부를 희생했다는 점이다.

신화에 따르면 오딘은 세상의 멸망을 불러올 마지막 전쟁(라그나로크)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무지개다리를 건너 요툰하임(거인들의 세계)에 있는 '지혜의 샘'을 찾아간다. 세계수(世界樹·세계를 떠받치는 거대하고 신성한 나무) '위그드라실'이 뿌리를 적시고 있는 '지혜의 샘'으로 내려간 오딘은 그곳을 지키는 거인 미미르(Mimir)로부터 '지혜의 샘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빼야한다. '지혜'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평생을 외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천안할 사태에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지

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는 '북한과 마찰이 있어도 최악의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답답하는 마한가 같다. 눈 하나를 버리는 대신 얻고자 했던 문제들을 일거에 풀어낼 '최고의 지혜'를 얻어낸 오딘이 부럽기 만하다.

신화에서 오딘은 최고의 지혜를 갖추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무지개다리를 건너 요툰하임(거인들의 세계)에 있는 '지혜의 샘'을 찾아간다. 세계수(世界樹·세계를 떠받치는 거대하고 신성한 나무) '위그드라실'이 뿌리를 적시고 있는 '지혜의 샘'으로 내려간 오딘은 그곳을 지키는 거인 미미르(Mimir)로부터 '지혜의 샘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빼야한다. '지혜'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평생을 외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천안할 사태에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지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지혜의 대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경 제 부 2200-634 정 제 부 2200-641 사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이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D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